

- 러시아 연방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2004 년 1/4 분기 동안 알루미늄 원석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약 65% 성장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 수출 추세를 보았을 때, 러시아 비철금속 수출량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적어도 2004 년 1/4 분기 현지 생산자들이 비철금속을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문의처 : 모스크바무역관 이금하 kumhalee@kotra.or.kr)

일본지역

▣ 일본경제의 부활과 시사점

- 근년 들어 일본 경제는 오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더욱 뚜렷이 해오고 있음.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기준)은 '01 년도 -1.2%에서 '02 년도에는 1.1%로 플러스 성장세, '03 년도에는 3.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IT 호황기인 2000 년도(3.0%) 수준을 넘어서 거품경제 붕괴이래 '96 년(3.6%)에 이은 고성장을 실현하였음.
- 금년도에도 해외경제의 성장세를 배경으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및 기업부문의 신장세 지속과 이 같은 경기 회복세가 개인소비부문에도 파급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여 일본경제는 3%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대규모 재정투자 없이 민간수요 주도에 의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최대의 특징으로서 거품경제 붕괴후의 과거 2 차례에 걸친 경기 회복기와 궤를 달리하고 있음.
- 우선 첫째 금번 경기 회복의 기점이 된 것은 수출의 확대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이 미국에 이어 제 2 의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해옴으로써 향후로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 둘째로 이 같은 수출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는 구조조정 진전으로 인한 기업수익의 개선과 어우러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회복을 초래하고 있는 점임.

- 셋째로 국내수요의 증가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물가, 기업물가의 하락폭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외에 주가 상승, 도심부의 지가하락세 둔화 등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경향도 주춤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임.
- 넷째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크게 진전된 점임. 특히 밸런스시트면에서 과잉채무의 감소가 두드러져 수익면에서도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거품경제붕괴 이후 최고수준에 달하였다는 점임. 즉 일본기업의 경영기반이 비록 매출액 신장이 부진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임.
- 특히 지난 10 년간의 장기 불황기를 거치면서 일본기업들은 단순히 채산성을 개선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영 체질까지도 개선해 왔고, 그 결과 기업들의 수익성이 회복되어오고 있음. 이렇게 해서 강화된 경영기반과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고기능 신제품 개발을 활발해 추진해오고 있음
- 다섯째로 GDP 의 60%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기업 및 수출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지난해 4/4 분기이래 회복세를 더해오면서 경기회복세를 선명하게 해주고 있음.
-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정부의 역할임.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부문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왔으나, 불황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2002 년 이후 일본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엔고 저지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음. 일본정부는 G7 주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엔고 저지를 위해 대규모 단독 시장개입을 마다하지 않았고 시장개입을 위한 예산을 특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 8 월 중순 현재 엔화환율은 달러당 110 엔대 전후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된 추세를 보여오고 있음.
- 아울러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임.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즈미 수상 취임 이래 “금융청”의 분리·독립, 금융재정담당대신 신설, 산업재생기구 설치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금융부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음.
-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제도 신설 및 벤처창업지원제도 강화, 나노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 육성 지원 등의 시책과 더불어 외자유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실시해오고 있음.
- 이처럼 일본경제는 근년 들어 회복기조를 더욱 뚜렷이 해오고 있으나 이 같은 회복세가 향후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 또한 사실임.
- 즉 현재의 회복세는 대기업/제조업 주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이것이 지방경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점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경기회복의 또 하나의 날개인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생산과 소비,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는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임.

□ 일본경제의 불황극복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 첫째로는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으로서 특정한 기간, 특정한 목적을 위한 한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머물지 않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경영체질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임. 디지털 경기로 대변되는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바로 이 같은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전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둘째로는 금융부문 개혁, 경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 차원의 경제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점임.
- 셋째로는 아시아경제의ダイナ미즘을 활용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ASEAN 과의 FT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 일본의 경우도 전통적인 미국 일변도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고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넷째로는 고용의 창출과 소득 증대 실현을 위해서는 예컨대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육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임. 일본도 장기 불황극복, 고용 창출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5 백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실행에 옮겨오고 있는 점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섯째로는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는 점임.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